

제1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수업 중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은 얼마 전 체험 학습을 갔던 전통 마을에서 본 담장이 기억나시나요? 저는 그때 보았던 담장의 문양이 인상 깊어 담장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담장의 종류에 대해 조사해 보았어요.

담장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담장을 만들 때 사용되는 재료에 따라 담장의 종류가 구분되기도 합니다. 먼저 돌로 만든 담장에는 사교석 담장이 있습니다. (㉠ 자료 제시) 보시는 것처럼 사교석 담장은 맨 아래에 길게 다듬어 만든 돌인 장대석을 2~3단 놓고, 그 위에 사교석을 규칙적으로 쌓아 올립니다. 사교석은 한 변이 15~18cm가량 되는 정육면체 모양으로 가공한 돌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돌을 가공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교석 담장은 주로 궁궐이나 부유한 집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와로 지붕을 얹어 격식을 높이기도 했어요. 또한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사교석 담장에 꽃이나 십장생 등의 문양을 넣어 꽃담으로 만들기도 했는데요, 꽃담은 여성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돌로 만든 또 다른 담장으로는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막돌을 쌓아 올린 자연석 담장이 있습니다. (㉡ 자료 제시) 보시는 것처럼 자연석 담장은 크기가 다른 비정형의 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만들었는데요, 이때 쉽게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직선보다는 곡선으로 이어 나가는 방식을 택했어요. 자연석 담장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돌을 쌓아 만들었기 때문에 서민들의 살림집에서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담장을 쌓은 후에는 짚이나 갈대로 담장 위에 지붕을 올리기도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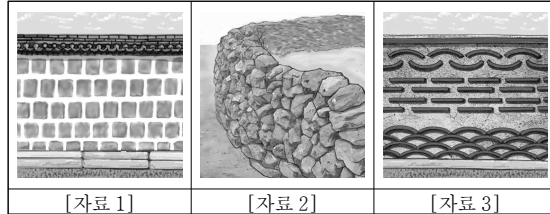
담장의 재료로는 돌뿐만 아니라 흙도 사용되었는데요, 흙으로만 쌓은 담장은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기와를 섞어 담장의 강도를 높이기도 했어요. (㉢ 자료 제시) 이 담장이 바로 기와와 흙을 섞어 쌓은 와편 담장인데요, 반원통형 모양의 수키와 나 평평하고 넓직한 암키와를 흙과 번갈아 층을 이루면서 반복하여 쌓으면 다양한 문양을 자유롭게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와편 담장은 상대적으로 기와를 구하기 쉬웠던 사찰이나 양반의 살림집 등에서 많이 사용되었어요.

그렇다면 (자료 제시) 전통 마을 체험 학습 때 봤던 이 담장은 무슨 담장이지요? (대답을 듣고) 네, 맞습니다. 방금 설명한 와편 담장이지요. 학교 도서관에도 담장에 관한 책이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도입부에서 발표 소재를 선정한 계기를 언급하고 있다.
- ② 발표에 활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혀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 ③ 발표 순서를 안내하여 청중이 내용을 예측하도록 하고 있다.
- ④ 대상을 일상적 소재에 빗대어 표현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발표 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용을 제시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2. 다음은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공된 돌을 규칙적으로 쌓은 담장의 형태를 보여 주기 위해 ㉠에 [자료 1]을 활용하였다.
- ② 기와로 지붕을 얹어 격식을 높인 담장의 형태를 보여 주기 위해 ㉠에 [자료 1]을 활용하였다.
- ③ 정형화되지 않은 자연석을 이용하여 만든 담장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에 [자료 2]를 활용하였다.
- ④ 담장을 만들 때 곡선 형태로 이어 나가는 것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에 [자료 2]를 활용하였다.
- ⑤ 담장의 재료로 돌 이외에 흙과 기와도 쓰였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에 [자료 3]을 활용하였다.

3.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나타난 학생의 반응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학생 1: 담장에 대해 알게 되어 유익했어. 할머니 댁에서 본 담장을 떠올리며 들었더니 이해가 잘되더라. 어떤 종류의 담장이 더 있는지 알아보러 도서관에 가 봐야지.

학생 2: 같이 가자. 난 꽃담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봐야겠어. 꽃담에 어떻게 문양을 넣었는지 궁금하거든. 발표에서 그 방법을 알려 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학생 1: 나는 이번 발표를 듣고 와편 담장도 기와를 활용해서 꽃담의 꽃 문양과 같이 특정한 문양을 만들어 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

학생 2: 맞아. 그런데 나는 기와가 장식용으로만 쓰인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네. 기와가 담장의 강도를 높이는 실용적인 역할도 한다는 점이 흥미로웠어.

- ① ‘학생 1’은 자신의 경험이 발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 ② ‘학생 2’는 발표에서 알게 된 내용을 통해 자신의 배경지식을 수정하고 있다.
- ③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발표 내용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탐색하려 하고 있다.
- ④ ‘학생 1’과 달리, ‘학생 2’는 제시된 정보가 부족한 것에 대해 아쉬워하고 있다.
- ⑤ ‘학생 1’은 발표 내용을 활용하여 ‘학생 2’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있다.

[4~7] (가)는 학생회 학생들의 대화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 1'이 작성한 건의문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애들아, 학생회 누리집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 봤어? 건강 행복 행사 운영에 관한 글 말이야. 조회 수도 높고 공감하는 댓글도 많이 달렸던데.

학생 2: ㉠ 응, 작년 건강 행복 행사에서 아쉬웠던 점과 올해 행사에 대해 바라는 점을 쓴 글 말하는 거지?

학생 1: 맞아. 그 글에 나온 인근 학교 사례처럼 우리 학교 행사에서도 올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겠더라.

학생 3: 그러려면 작년처럼 하루만 행사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지 않아?

학생 1: 그럼 올해에는 행사 기간을 늘려 달라고 학교에 건의를 해 보자. 행사 기간은 한 주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학생 2: 좋은 생각이야. 그럼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

학생 3: 체육 대회가 포함된 주에 하는 건 어때? 시기적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체력이나 건강 상태에 관심을 가지기 좋을 것 같아서.

학생 2: 그게 좋겠다. ㉡ 그런데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추가할 프로그램도 함께 제안해야 설득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학생 1: 그러자. 프로그램은 어떤 게 좋을까?

학생 3: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으니,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체험 부스 운영을 제안해 보는 건 어때?

학생 2: 그거 괜찮다. ㉢ 체험 부스를 운영하면 더 많은 학생이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아.

학생 1: 그래. 그리고 요즘 학생들은 온라인 소통이 활발하니 자신만의 운동 방법이나 추천할 만한 걷기 코스 등을 학교 SNS에 소개하는 활동도 제안해 볼까?

학생 2: ㉣ 아, 네 말을 듣고 생각이 났는데, 소개하는 글에 댓글로 운동 인증 사진을 공유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학생 3: 그러자. 행사 기간에는 학교 급식에도 변화가 있으면 좋겠어. 건강에 좋은 식재료와 조리법을 활용한 급식을 제공하는 '건강 급식의 날' 운영을 제안하는 건 어때?

학생 2: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더 많은 학생이 행사에 공감할 수 있도록 건강 급식의 취지에 대한 안내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

학생 1: 응, 좋아. 건의문에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 있어?

학생 3: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도 제안하는 것은 어떨까? 내 주변에 학업이나 친구 관계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학생 2: ㉤ 예전에 '마음 해우소'라는 강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었어. 그런 강연도 제안하면 좋을 것 같아.

학생 1: 흥미롭겠다. 강연 외에도 추가할 만한 프로그램이나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고 글에 반영할게.

학생 3: 응, 그리고 건강 행복 행사가 주간으로 운영되었을 때의 기대 효과와 행사의 의의도 글에 포함하면 좋을 것 같아.

학생 1: 응,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서 건의문의 초고를 작성해 볼게. 글을 다 쓰면 같이 검토해 보자.

학생 2, 3: 그래, 좋아.

(나)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회장 이□□입니다. 학생들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교장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학생회 누리집 게시판에 작년 우리 학교의 건강 행복 행사가 학생들이 참여할 만한 프로그램이 적어 아쉬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에 많은 학생들이 댓글을 달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에 학생회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건강 행복 행사의 기간을 늘려 주간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시기적으로는 학생들이 건강에 관심을 갖기 좋은 체육 대회가 포함된 주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사 기간이 늘어난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를 희망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체 건강과 관련하여 '체성분 분석', '폐활량 측정' 등을 주제로 하는 건강 체험 부스 설치, SNS를 활용한 건강 활동 소개 및 공유, 건강에 좋은 식재료와 조리법을 활용한 '건강 급식의 날' 운영 등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리 건강을 위해 청소년 심리 전문가 강연, 명상 프로그램이나 마음 치유 캠프 등도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 행복 행사가 주간으로 운영되면 더 많은 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올바른 식습관도 갖추어 나갈 수 있고, 자신의 몸 상태에 관심을 가지며 활기차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불안감과 우울감 등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심리적 안정과 치유의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바쁜 학교생활 속에서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건강 행복 행사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오아시스가 될 것입니다. 저희의 건의 사항을 행사 운영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다음은 학생회 누리집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이다. (가)의 대화에서, 게시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목: 건강 행복 행사, 이렇게 바꿔 주세요. 홈 | 게시판 | 자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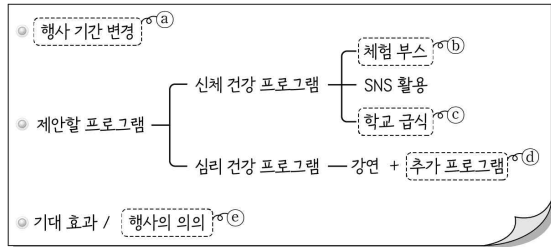
올해는 건강 행복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작년에는 홍보도 부족하고 방과 후 강연 프로그램밖에 없어서 많은 학생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학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에 대한 홍보도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인근 학교에서는 유연성 측정 대회를 열어 학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대회를 여는 것은 어떨까요?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 ① 행사의 일정을 학생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SNS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②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하기 위해 작년 행사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던 강연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③ 인근 학교의 건강 행사 프로그램 사례를 알아보기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④ 행사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전교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장단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⑤ 학생들이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5. (가)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대가 언급한 것과 자신이 떠올린 것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 ② ㉡: 상대가 제시한 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③ ㉢: 상대가 제시한 방안이 따른 긍정적 효과를 언급하고 있다.
- ④ ㉣: 상대가 제시한 방안이 대해 추가적인 제안을 덧붙이고 있다.
- ⑤ ㉤: 상대의 발언과 관련하여 자신의 경험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6. 다음은 (가)의 대화 상황에서 '학생 1'이 작성한 메모의 일부이다. ㉠~㉣가 (나)에 반영된 양상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은 체육 대회가 있는 주에 행사를 주간으로 운영해 달라고 건의하는 것으로 (나)에 반영되었다.
- ② ㉡는 건강 체험 부스의 구체적 체험 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나)에 반영되었다.
- ③ ㉢는 건강에 좋은 식재료와 조리법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를 고려한 '건강 급식의 날'을 제안하는 것으로 (나)에 반영되었다.
- ④ ㉣는 명상 프로그램이나 마음 치유 캠프의 운영을 제안하는 것으로 (나)에 반영되었다.
- ⑤ ㉣는 행사가 학생들에게 몸과 마음을 돌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비유적 표현을 통해 제시하는 것으로 (나)에 반영되었다.

7. <보기>는 (나)의 4문단의 초고이다. 4문단에 반영된 수정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건강 행복 행사의 기간이 늘어나면 더 많은 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건강 행복 행사가 정말 기대됩니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몸 상태에 관심을 가지며 활기차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리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치유의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① 변경되기를 희망하는 행사 기간을 더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 ② 행사에 대한 개인적 기대감이 드러난 부분을 삭제한다.
- ③ 행사의 프로그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추가한다.
- ④ 심리 건강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여 주는 근거 자료를 함께 제시한다.
- ⑤ 마지막 문장과 그 앞 문장의 연결이 자연스러워지도록 적절한 연결 표현을 추가한다.

[8~10] 다음은 작문 상황과 이를 바탕으로 학생이 작성한 초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새로운 산업으로 주목받는 '푸드테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교지에 싣고자 함.

[학생의 초고]

푸드테크(FoodTech)란 식품과 기술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푸드테크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푸드테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먼저, 환경적 측면에서 푸드테크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동물들이 내뿜는 온실가스로 인해 축산업이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받고 있는 상황에서, 콩이나 밀 등을 원료로 육류의 맛과 질감을 비슷하게 구현해 낸 '식물성 대체육' 기술은 주목할 만한 대안이 되고 있다. 또한 식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 그냥 버려질 때 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 이러한 부산물을 가공하여 다른 식품이나 원료 등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푸드 업사이클링' 기술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

다음으로 식량 문제 측면에서 푸드테크는 식량 공급의 안정화를 통해 식량 부족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스마트 팜'은 농작물에 최적화된 온도, 습도, 토양 등을 자동으로 유지하고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계절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농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해 준다. 특히 기상 이변으로 농작물 생산이 위협받고 있는 요즘, 스마트팜 관련 기술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또한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식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의 모든 단계에서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는 '스마트 푸드체인'은 생산된 식품이 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식품의 양을 줄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식량 공급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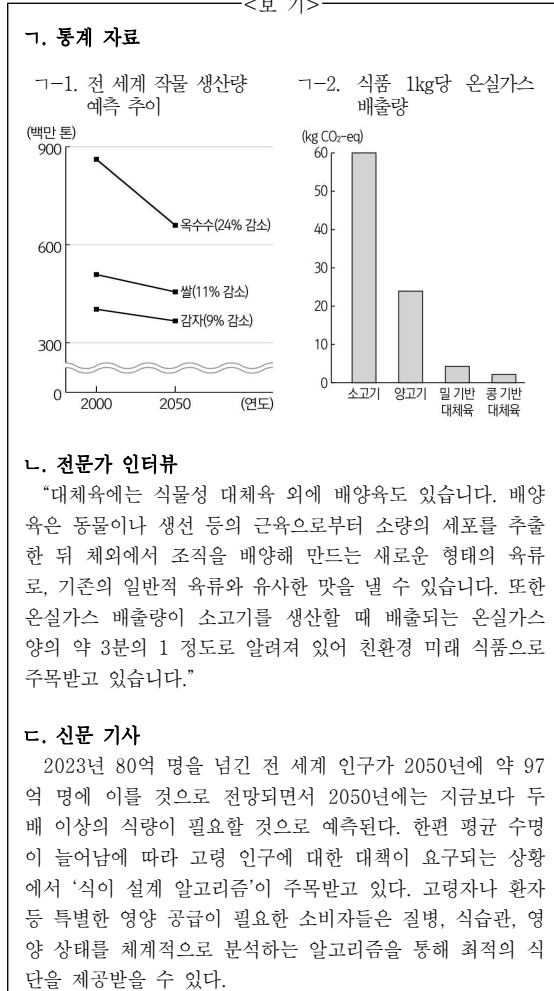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삶의 질 측면에서 푸드테크는 첨단 공학 기술을 바탕으로 삶의 편리성을 향상시켜 준다. 로봇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서빙 로봇'이나 '조리 로봇' 등 식품 관련 로봇도 다양하게 개발되었는데, 이러한 로봇의 도입은 특히 학교 급식실과 같은 대량 조리 현장에서 노동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AI와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개발된 '식이 설계 알고리즘'은 소비자의 연령, 건강 상태, 음식 선호도 등을 분석하여 맞춤형 식단 추천이 가능하다.

[A]

8. '학생의 초고'에 활용된 글쓰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푸드테크의 개념을 정의하여 용어의 의미를 밝혔다.
- ② 푸드테크가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며 설명하였다.
- ③ 푸드테크가 발전해 온 과정을 단계별로 분석하여 서술하였다.
- ④ 푸드테크에 따른 기대 효과를 여러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 ⑤ 푸드테크가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을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9. <보기>는 학생이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1을 활용하여, 전 세계 작물 생산량의 감소 추이를, 버려지는 식품의 양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 푸드체인 기술을 활용하려면 식량 공급 안정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 주는 근거로, 3문단에 제시한다.
- ② ㉡을 활용하여, 배양육에 대한 내용을, 식물성 대체육 이외에 기존의 일반적 육류를 대체할 새로운 육류 생산 방법의 사례로, 2문단에 추가한다.
- ③ ㉢을 활용하여, 특정 소비자들의 특성을 분석하여 최적의 식단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식이 설계 알고리즘이 활용되는 구체적 예시로, 4문단에 추가한다.
- ④ ㉠-1과 ㉡을 활용하여, 인구 증가에 따라 필요한 식량의 양은 증가하고 있지만 작물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다는 내용을, 식량 부족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서 푸드테크가 주목받는 이유로, 3문단에 제시한다.
- ⑤ ㉠-2와 ㉡을 활용하여, 기존의 일반적 육류와 대체육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를, 대체육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효과적이라는 내용의 근거로, 2문단에 제시한다.

10. 다음은 학생이 초고를 작성하며 떠올린 생각이다. 이를 고려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마지막 문단에는 푸드테크의 발전 전망을 밝히고, 독자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을 써야겠어.

- ① 푸드테크는 식품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바꾸며 친환경적 식품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우리도 푸드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친환경적 식습관을 실천해 보면 어떨까?
- ② 미래 식품 산업의 핵심 분야로 푸드테크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 ③ 식품에 기술을 적용한 푸드테크는 식품 안전성 측면에서 우려가 된다. 푸드테크의 발전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 ④ 푸드테크는 첨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푸드테크가 우리 삶에 가져올 긍정적 영향에 주목하여 우리도 푸드테크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 ⑤ 푸드테크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가 커지면서 푸드테크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더욱 발전하고 있다. 식품 업체도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식품 생산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운 변동은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는 경우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는 경우에는 유음 탈락이 있다. 유음 탈락은 특정 음운 환경에서 유음 ‘ㄹ’이 탈락하는 음운 현상으로, 다른 탈락 현상에 비하여 적용되는 환경이 더 다양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먼저, ‘ㄹ’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뒤에 ‘ㄴ, ㄷ, ㅂ, ㅅ’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거나 어미 ‘-오’가 결합할 때 유음이 규칙적으로 탈락한다. 예를 들면, ‘알다’의 어간 ‘알-’에 ‘ㄴ, ㄷ, ㅂ, ㅅ’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아는’, ‘알시다’, ‘아신다’와 같이 ‘ㄹ’이 탈락한 형태로 나타나고 ‘판다’의 어간 ‘판-’에 어미 ‘-오’가 결합할 때 ‘파오’와 같이 ‘ㄹ’이 규칙적으로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단어의 형성 과정에서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나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가 형성될 때 ‘ㄴ, ㄷ, ㅂ, ㅅ’ 앞에서 유음이 탈락하는 예도 있다. 이 경우, ‘버드나무’나 ‘바느질’과 같은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ㄹ’이 탈락한다. 그러나 ‘발등’, ‘철새’와 같은 단어에서는 ‘ㄹ’이 탈락하지 않는 것처럼 단어의 형성 과정에서의 유음 탈락은 동일한 음운 환경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로는 ‘ㅎ’ 탈락과 거센소리되기 현상을 들 수 있다. 먼저, ‘ㅎ’ 탈락은 ‘ㅎ’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할 때 받침 ‘ㅎ’이 탈락하는 현상으로, ‘날아[나아]’, ‘쌓이다[싸이다]’와 같이 ‘ㅎ’의 탈락이 일어난다. ‘ㅎ’ 탈락은 ‘많아[마나]’와 같이 ‘ㅎ’이 겹받침의 일부에 있을 때 뒤 음절과 연음되는 환경에서도 일어난다. 또한, 거센소리되기 현상은 ‘ㅎ’과 예사소리 ‘ㄱ, ㄷ, ㅂ, ㅅ’이 만나 거센소리인 ‘ㅋ, ㅌ, ㅍ, ㅊ’으로 축약되는 현상으로, ‘법학[버파]’, ‘종지[조지]’와 같은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유음 탈락은 동일한 음운 환경에서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 ② 유음 탈락은 용언의 활용 과정이나 단어의 형성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다.
- ③ ‘ㄹ’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ㄹ’이 탈락하지 않는다.
- ④ ‘ㅎ’의 탈락은 ‘ㅎ’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에 일어난다.
- ⑤ ‘ㅎ’이 탈락하는지, ‘ㅎ’과 다른 자음이 만나 축약되는지에 따라 음운 변동 결과의 표기 반영 여부가 달라진다.

12. 밑글을 바탕으로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료>

- 저는 이 집에 ㉠ 삽니다.
- 나의 모습을 잊지 ㉡ 마오.
- 과녁에 ㉢ 화살을 쏘았다.
- ㉣ 좋은[조은] 물건을 고르자.
- ㉤ 국화[구과]가 많이 피었다.

- ① ㉠은 ‘살다’의 어간 ‘살-’에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여 ‘ㄹ’이 탈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군.
- ② ㉡은 ‘말다’의 어간 ‘말-’에 어미 ‘-오’가 결합하여 ‘ㄹ’이 탈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군.
- ③ ㉢은 두 개의 어근인 ‘활’과 ‘살’이 결합할 때 ‘ㅅ’ 앞에서 ‘ㄹ’이 탈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군.
- ④ ㉣가 [조은]으로 발음되는 것은 ‘ㅎ’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했기 때문이겠군.
- ⑤ ㉤가 [구과]로 발음되는 것은 예사소리 ‘ㄱ’과 ‘ㅎ’이 만나 축약되었기 때문이겠군.

13.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시제 \ 품사	동사	형용사
과거	-(으)ㄴ, -던	-던
현재	-는	-(으)ㄴ
미래	-(으)ㄹ	-(으)ㄹ

위 표는 시제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동사와 형용사의 관형사형 어미를 보여 준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자료]의 용언을 활용하여 시제에 맞게 문장을 만들어 보자.

[자료]

자다, 푸르다, 깨끗하다, 읽다, 떠나다

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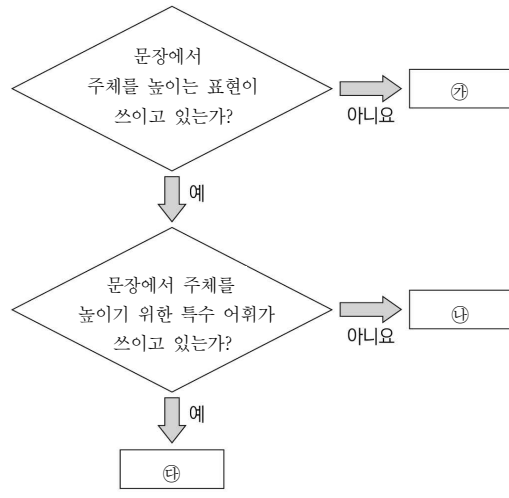
문장

- ① 과거 내가 잔 곳은 그 방이 아니다.
- ② 과거 푸르던 하늘이 지금은 뿌옇다.
- ③ 현재 우리 교실은 깨끗한 상태이다.
- ④ 현재 오늘 읽은 책은 참 흥미롭네.
- ⑤ 미래 아홉 시에 떠날 기차를 타자.

14. <보기>의 ‘탐구 과정’에 따라 ㉡~㉤에 들어갈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탐구 과정]



- ① ㉡: 형은 고모를 뵈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 ② ㉡: 그는 산책을 하기 위해서 공원에 갔습니다.
- ③ ㉢: 아버지, 옷을 따뜻하게 갖춰 입으셔야 해요.
- ④ ㉢: 동생은 그때 선생님께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 ⑤ ㉢: 할머니께서는 어느 방에서 주무시니?

15. <보기>를 통해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부테 안즈시니 [부처가 앉으시니]	—『월인천강지곡』
◦ 보미 옛는 萬里엿 나그네는 [봄에 와 있는 만 리 밖의 나그네는]	—『두시언해』
◦ 고기 뛰노니 히 뵈헤 비취엿도다 [물고기 뛰노니 해가 산에 비치어 있도다]	—『두시언해』

- ① ‘부테’를 보니 현대 국어와 달리 주격 조사 ‘이’가 쓰였음을 알 수 있군.
 ② ‘안즈시니’를 보니 현대 국어와 달리 이어 적기를 하였음을 알 수 있군.
 ③ ‘보미’를 보니 현대 국어와 달리 관형격 조사 ‘이’가 쓰였음을 알 수 있군.
 ④ ‘뛰노니’를 보니 현대 국어와 달리 어두자음군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군.
 ⑤ ‘뵈헤’를 보니 현대 국어와 달리 ‘ㅎ’ 종성 체언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샤프츠베리는 근대 미학의 기초를 마련한 인물로 ㉠ 간주된다. 그의 미학은 초월적 신의 존재가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형이상학적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온 우주가 신의 피조물이라고 보았던 샤프츠베리는 우주의 속성인 질서, 균형, 조화를 지닌 대상을 아름답다고 여겼으며 그가 생각하는 미는 대상 속에 실재하는 형식적 성질로부터 기인하는 것이었다.

샤프츠베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형이상학적 전제는 미의 위계성이다. 그는 대상이 지닌 형성력을 기준으로 미를 3등급으로 나누었다.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형성력을 지닌 존재인 신을 가장 높은 등급으로 보았고, 신에 의해서 형성되어 예술품과 같은 아름다운 것도 형성할 수 있는 인간을 그다음 등급으로, 예술품과 같이 형성된 결과물에 해당하는 물질적 대상은 가장 낮은 등급으로 보았다. 그는 하위 등급은 언제나 상위 등급으로부터 기인한다고 강조하면서, 물질적 대상보다는 인간이, 인간보다는 신이 더 아름답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샤프츠베리는 미적 경험에 있어서 인간이 어떻게 미를 감지한다고 보았을까? 샤프츠베리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인간이 신으로부터 받은 자연적 본능인 ‘취미’를 제시한다. ㉡ 취미는 미를 감각하는 하나의 독립적인 내감이자 미를 판단하는 능력으로서, 감각 기관이 대상의 맛, 색깔 등을 즉각적으로 감지하는 것처럼 취미도 대상을 접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미

를 판단해 낸다는 것이다. 그런데 취미는 자연적 본능임에도 문화권이나 사람에 따라 미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샤프츠베리는 그 이유를 본능이 왜곡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취미는 본능이므로 인간의 노력으로 새롭게 얻을 수는 없지만, 사회적 영향에 따라 ㉢ 발현되는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취미가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계발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편 취미의 반응이 즉각적이라는 점은 미적 판단이 우리의 이익과 무관한 것임을 시사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샤프츠베리는 무관심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무관심성이란 대상에 대해 무심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미적 경험의 주체인 인간이 대상의 도구적 가치에 주목하거나 대상에 대한 소유욕을 갖는 것에서 벗어나 대상 그 자체가 지닌 미적 성질, 즉 내재적 가치에 주목해야 대상의 아름다움을 관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나)

존 듀이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이자 환경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유기체로 보았다. 그래서 경험의 주체인 인간은 환경과 같은 경험 대상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자신에게 적응시키는 과정을 반복하며 경험을 생성한다고 보았다.

듀이는 어떤 경험의 시작부터 의도된 목적이 ㉣ 달성되는 완결에 이르기까지, 경험을 이루는 행위들이 온전하게 이어지는 경험을 ‘하나의 경험’이라고 하였다. 듀이는 이렇게 경험을 이루는 각 행위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경험이 완결되면 하나로 통합된 단일체가 된다고 말했다. ‘하나의 경험’이 단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 질성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질성이란 경험 주체가 어떠한 경험 상황에서 직접 포착하는 것으로, 경험 상황만이 가진 고유하며 독특한 성질을 의미한다. 가령,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 후 자신이 포착한 그 식사 of 지배적인 특징이 풍성함이었다면 풍성함이 그 식사 of 질성이 된다. 만약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는 우아함이 지배적인 특징이었다면 우아함이 그 식사 of 질성이 된다. 이와 같이 질성은 경험 주체가 경험 대상과 상호 작용한 결과로 나타나기에 같은 경험에 대해서도 주체마다 ㉥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듀이는 예술도 ‘하나의 경험’이라는 차원에서 설명하고자 했다. 그는 창작 행위가 ‘하나의 경험’이 되려면 창작자가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감상자로서의 관점을 지녀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자신의 행위가 의도한 목적을 향하여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감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판단하며, 끊임없이 행위를 선택하고 결정함으로써 작품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듀이는 창작자가 기술적 정교함이 아니라 자신의 작품을 통해 감상자가 어떠한 경험을 갖게 될 것인가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듀이는 감상자의 미적 경험에서 감상 행위가 ‘하나의 경험’이 되려면 감상자도 창작자가 작품을 실제로 만드는 행위에 견줄 만한 자기만의 경험을 창조해야 한다고 보았다. 창작자가 자신의 의도대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 감상자도 연습이나 수련을 통해 길러진 자신의 관점과 관심에 따라 작품을 감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듀이의 관점에서 예술 작품의 의미와 가치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것을 ㉦ 때때로 하는 감상자의 문화적, 시대적 배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6.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미적 경험에 대한 특정 철학자의 견해가 변화해 온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 ② (나)는 특정 철학자의 견해가 비판을 받는 이유를 미적 경험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미적 경험에 대한 특정 철학자의 견해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특정 철학자가 제시한 미적 경험에 관한 개념이 어떤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미적 경험의 과정에 특정 철학자의 견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하고 있다.

17. 밑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샤프츠베리는 인간을 신의 피조물이자, 예술품을 만들 수 있는 존재로 본다.
- ② (가): 샤프츠베리는 취미가 지속적인 교육과 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 ③ (나): 듀이는 경험의 주체인 인간을 환경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유기체로 본다.
- ④ (나): 듀이는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는 완결에 이르지 못한 경험은 ‘하나의 경험’이 아니라고 본다.
- ⑤ (나): 듀이는 기술적 정교함만으로는 ‘하나의 경험’으로서의 창작 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본다.

18. 무관심성을 바탕으로 대상의 가치를 판단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별을 보고, 별의 탄생 원리를 밝혀 학문적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것
- ② 바다를 보고, 물결이 끝없이 이어져 있는 바다의 광활함에 감탄하는 것
- ③ 은행나무를 보고, 은행잎이 노랗게 물든 것도 모른 채 그 옆을 무심히 지나가는 것
- ④ 조각상을 보고,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 소장하고자 하는 것
- ⑤ 꽃을 보고, 그 꽃이 연인에게 사랑을 전달하기에 적합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것

19.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미를 객관적으로 감지하는 수단이고, ㉡은 객관적으로 파악된 미적 대상의 특성이다.
- ② ㉠은 미를 감지하는 독립적인 능력이고, ㉡은 경험 대상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성질이다.
- ③ ㉠은 주체가 대상의 특성을 판단한 결과이고, ㉡은 경험 대상이 주체의 특성을 만들어 낸 결과이다.
- ④ ㉠은 초월적인 존재가 부여하는 특성이고, ㉡은 경험 주체의 경험이 의도한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 주는 수단이다.
- ⑤ ㉠은 미적 대상을 감각할 때 즉각적으로 발현되는 능력이고, ㉡은 미적 대상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습득하게 되는 능력이다.

20. (가), (나)를 이해한 학생이 <보기>의 ㉠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라파엘로는 토론을 바탕으로 한 지식 탐구의 중요성을 드러내기 위해 ㉠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을 창작하였다. 그는 책을 들고 탐구하는 모습, 토론에 열중하는 모습 등 실존했던 철학자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하였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릴 때마다 이 묘사가 지식 탐구의 중요성을 드러내기에 적합한지를 고려하면서 창작하였다. 또한 건축물과 인물들을 완벽한 대칭과 비례에 따라 균형 있게 구성하였고, 감상자가 공간의 깊이감과 현실감을 느끼도록 원근법을 사용하였다. 이 작품을 감상한 사람들은 원근법을 통해 실제 그 공간 속에 있는 듯한 현실감을 느낀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그림 속 일부 인물들은 분명하게 식별이 안 되어 인물들의 정체에 대해 다양한 해석과 논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 ① 샤프츠베리는 대칭과 비례에 따라 건축물과 인물을 균형 있게 배치한 ㉠의 형식적 구성이 우주의 속성을 드러낸다고 보아 아름답다고 판단하겠군.
- ② 듀이는 라파엘로가 ㉠에 원근법을 사용하여 감상자에게 현실감이 느껴지도록 의도했다는 점에서, 창작자가 감상자를 고려한 ‘하나의 경험’으로서의 창작 행위를 한 것으로 보겠군.
- ③ 듀이는 라파엘로가 지식 탐구의 중요성을 드러내기에 적합한지 고려하며 ㉠의 각 인물을 그려 나간 것을, 창작자 스스로가 감상자로서의 관점에서 행위를 선택하고 결정해 나간 과정으로 보겠군.
- ④ 샤프츠베리는 ㉠을 자신이 생각하는 미의 위계 중 가장 낮은 등급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보고, 듀이는 ㉠을 감상자에 의해 그 작품의 의미가 재창조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겠군.
- ⑤ ㉠의 인물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쟁에 대해 샤프츠베리는 취미가 왜곡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고, 듀이는 감상자만의 관점에 따라 작품을 감상하는 연습이 부족해서 나타난 결과로 보겠군.

21.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여겨진다
- ② ㉡: 나타나는
- ③ ㉢: 세워지는
- ④ ㉣: 서로 다르게
- ⑤ ㉤: 마주하는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건축은 공공복리를 저해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간주된다. 그래서 허가 요건에 맞춘 설계로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건축 금지가 해제되어 건축이 가능해진다.

건축 행위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인 대지 위에서 이루어진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대지는 하나의 지면을 가지며, 이것이 건축 허가의 단위가 된다. 일반적으로 건축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신축에서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대지는 처음부터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 나대지일 수도 있고, 기존 건축물이 건축주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 인위적으로 부서지는 해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부서지는 멸실로 인해 전부 소실된 대지일 수도 있다. 전부 소실된 경우 새로 축조한 건축물의 규모가 개축이나 재축에 해당하면 신축으로 보지 않는다. 한편, 주된 용도의 건축물을 이용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부속 용도의 건축물만 존재하는 대지 내에서 이 부속건축물과는 별도로 주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경우도 신축에 해당한다.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규모를 늘려 짓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규모에는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가 포함된다. 건축면적은 일반적으로 지상층 중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을, 연면적은 각 층 바닥면적의 총합을 의미한다. 증축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을 증가시키는 경우, 바닥면적의 증감 없이 높이만 증가시키는 경우, 주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부속건축물이나 다른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등이 있다. 기존 지하층을 둘러싼 지표면을 깎아서 그 층이 지상에 노출되게 하는 것도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한 경우이므로 증축에 속한다. 또한 한 층의 층고가 상당히 높아 중간층을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도 증축에 해당한다. 한편 냉난방, 급수 등 건축물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건축물의 설비는 건축물로 보지 않으므로 설비 설치의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건축물의 규모가 종전 규모 범위 이하인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 이때 일부를 해체한다는 것은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셋 이상을 해체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를 이동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개축에 해당하나, 한 대지에 여러 동이 있는 경우 개별 건축물 단위로 개축 해당 여부를 판단하므로 동수를 늘려서 축조하는 경우는 개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재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 이때 연면적의 합계, 즉 그 대지에 존재하는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이 종전 규모 이하여야 하며, 동수, 층수, 높이 중 어느 하나는 종전 규

모를 초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전이란 도시 개발 계획, 주변 환경의 변화, 안전 문제, 설계와 다른 배치 등의 사유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 옮기는 것이다. 주요구조부는 철거 시 건축물의 안전성에 결정적 위해가 되는 구조 부분인 내력벽, 기둥, 보, 바닥, 지붕틀, 주계단을 말하며, 최하층 바닥, 옥외 계단 등은 주요구조부에서 제외된다. 일체식 구조인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과 달리 조립식 구조인 목조 건축물은 최하층 바닥 등을 제외한 상층부의 구조체를 들어 올려서 이전할 수 있다.

* 내력벽: 구조물의 하중을 견디어 내기 위하여 만든 벽.

* 보: 기둥 위에서 지붕의 무게를 전달해 주는 건축 재료.

22. 밑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건축물의 건축은 설계상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허가요건을 준수한 경우에 한해 허가된다.
- ② 나대지에 신축하는 것은 기존에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던 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는 행위이다.
- ③ 건축물의 내력벽을 해체하는 것이 옥외 계단을 해체하는 것보다 건축물의 안전에 더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 ④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이 설계와 다르게 배치되었을 경우에 상층부의 구조체를 들어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⑤ 자연재해로 인해 기존 건축물이 전부 소실된 대지에 층수와 높이를 증가시킨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신축에 해당한다.

23. **증축**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중간층을 만들어 건축물의 연면적을 늘린 것은 증축에 해당하겠군.
- ② 건축물의 옥상에 물 공급을 위한 물탱크를 설치하는 것은 증축에 해당하지 않겠군.
- ③ 건축면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하층의 바닥면적만 증가시킨 것은 증축에 해당하지 않겠군.
- ④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주된 용도의 건축물을 별도로 축조하는 것은 증축에 해당하지 않겠군.
- ⑤ 지하층이 존재하는 건축물 주변의 지표면을 깎아 지하층을 지상에 드러나게 한 것은 증축에 해당하겠군.

24. ㉠과 ㉡을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건축주의 자발적 의지로 기존 건축물이 소실된 상황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
- ② ㉠은 ㉡과 달리, 한 대지에 있는 여러 동의 건축물이 모두 소실되었을 때 일부 동만 다시 축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③ ㉡은 ㉠과 달리, 기존 건축물이 존재하던 대지와 동일한 대지 내에서 이루어진다.
- ④ ㉡은 ㉠과 달리, 한 건축물의 일부만 소실된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을 종전과 같게 다시 축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⑤ ㉠과 ㉡은 모두, 건축물의 높이를 기존 건축물보다 낮게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

2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A는 건축물을 새로 짓기로 결심하고 자신이 오래전부터 소유하던,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0㎡인 3층짜리 건축물을 모두 부수었다. 그리고 기존 건축물이 있던 대지에 건축물의 높이와 층별 바닥면적이 기존과 동일하면서 각 층의 층고만 높인 2층짜리 건축물을 새로 축조하였다.
- B는 한 대지 내에 연면적이 각 400㎡이면서 형태가 동일한 2개 동의 상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B는 이를 모두 부수고 그 대지에 새로운 상가 건축물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지진이 발생해 기존 건축물이 모두 붕괴되었다.

- ① A가 층고를 기존 건축물보다 높여 지은 것은 건축물의 규모를 늘려 지은 것이므로 증축에 해당한다.
- ② A가 새로 지은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해 같은 대지 안에 경비실을 추가로 짓는 것은 증축에 해당한다.
- ③ B가 지진 발생 전에 기존 건축물을 전부 부수고 각 층 바닥면적의 총합이 900㎡인 1개 동의 건축물을 축조했다면, 이는 신축에 해당한다.
- ④ B가 붕괴된 기존의 건축물을 연면적의 합계가 700㎡인 건축물로 재축한다면, 층수와 높이가 종전 규모 범위 이하인 3개 동으로 축조할 수 있다.
- ⑤ B가 지진 발생 전에 기존 건축물을 모두 해체하고 개축했다면, 같은 대지 내에서 기존 건축물과 다른 위치에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26. ㉔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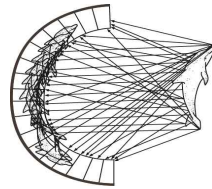
- ① 우리는 행사를 위해 물건을 강당으로 옮겼다.
- ② 나는 남의 말을 다른 이에게 옮기는 것을 경계하였다.
- ③ 그는 역사적 사건을 그림으로 옮겨서 후대에 전하였다.
- ④ 그녀는 준비해 온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자 결심하였다.
- ⑤ 동생은 방향을 바꾸어 반대편으로 발걸음을 옮겨 갔다.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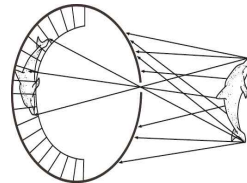
진화론자들은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우연히 돌연변이가 발생한 유전자가 후대에 전해지는 자연선택 과정의 누적으로, 오늘날 생태계의 생명체들이 현재와 같은 모습을 띠게 되었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의 눈과 같이 고차원적인 생체 기관도 우연의 산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이에 대해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생명체의 진화 과정을 ‘불가능 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하면서, 불가능 산의 최정점에 있다고 여겨지는 우리의 눈은 깎아지른 절벽을 단숨에 뛰어오르는 우연으로 그곳에 이른 게 아니라, 완만한 비탈을 천천히 오르는 우연의 누적으로 그곳에 이른 것이라고 말한다.

눈의 진화 과정에서 시작 단계에 해당하는 불가능 산의 밑자락에는 빛의 존재 여부만 희미하게 감지하는 세포를 지닌, 일부 단세포 생물의 피부나 거머리의 피부가 자리한다. 그 뒤에 이어지는 오르막에서는 빛의 광자를 포획하고 그 충격을 신경 자극으로 변환하는 일을 담당하는 광세포가 점차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광세포 그 자체는 동물에게 빛의 유무만을 알려 주므로 빛의 방향과 주변 대상의 형태까지 감지하려면 한쪽 면에는 암막이 있는 광세포가 필요하다. 광세포가 투명하면 모든 방향에서 빛이 들어와 어느 쪽에서 빛이 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광세포로 이루어진 평면을 활처럼 구부려서 그 곡면의 뒤쪽에는 암막이 있게 만든 오목한 눈이 등장하게 되는데, 대합이나 갯지렁이 등의 눈이 이 유형에 속한다. 그러나 오목한 눈의 망막에도 대상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상이 형성되지는 못한다.

오목한 눈에 돌고래의 상이 맺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셀 수 없이 다양한 방향에서 무수히 많은 빛이 동시에 들어오면 오목한 망막은 <그림 1>과 같이 무수히 많은 돌고래 상으로 뒤덮여 결국 하나의 상을 파악해 내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그림 2>와 같이 상하가 뒤바뀐 도립상이긴 하지만 단 하나의 온전한 돌고래 상만 망막에 맺힐 수 있을 때까지 빛의 유입구를 계속 좁혀 나가며 불가능 산을 오르는 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 전복이나 고동의 눈처럼 빛의 유입구가 매우 좁아진 눈과 앵무조개의 눈처럼 완전한 바늘구멍 눈이 나타나게 된다.



<그림 1>



<그림 2>

그러나 하나의 상만 맺힐 만큼 빛 유입구가 좁아지면 빛의 유입량이 부족해 아주 밝을 때만 대상을 볼 수 있다. 또한 빛은 파동처럼 움직이며 서로 간섭을 일으켜 상이 흐릿해지는 회절 현상을 보이는데, 빛의 유입구가 좁을수록 그 정도가 심해진다. 그래서 유입구를 더 넓게 하는 것도, 좁게 하는 것도 선택하기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이 발생한다. 바늘구멍 눈의 이러한 상황을, 두 장점을 동시에 취할 수 없는 상황이 흔히 다뤄지는 경제학의 특성을 본떠 광자 경제학이라 일컫는다.

빛은 하나의 투명 물질에서 다른 투명 물질로 들어갈 때 굴절되는데, 볼록 렌즈 모양의 투명 물질은 빛의 굴절을 통해 물체의 상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 준다. 그래서 광자 경제학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빛의 유입구를 더 넓힌 뒤에 투명한 볼록 렌즈인 수정체를 그 뒤에 끼워 넣은 수정체 눈이 나타났다. 수정체를 거친 빛도 도립상을 이루는 것은 여전하지만, 빛의 유입량이 늘어 아주 밝지 않아도 망막에 선명한 상이 맺힐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척추동물은 불가능 산의 아주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수정체 눈을 가지는데, 어류나 파충류 등은 수정체의 위치를 이동하는 방법으로, 조류나 포유류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빛의 굴절률을 조절하여 대상과의 거리에 맞게 초점을 맞춘다.

27. 빛을 읽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오늘날의 생태계에서 발견이 되는 눈의 유형과 발견이 되지 않는 눈의 유형을 비교하며 읽었다.
- ② 여러 가지 눈의 유형별 차이점에 주목하여 각 유형의 눈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파악하며 읽었다.
- ③ 광세포와 빛의 관계를 중심으로 생명체의 눈이 불가능 산의 최종점에 오를 수 없는 이유를 추측하며 읽었다.
- ④ 고차원적 생체 기관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이 제시한 눈의 진화 과정에서 논리적 모순을 찾아내며 읽었다.
- ⑤ 다양한 생물 종의 눈이 고차원적 눈의 유형으로 수렴해 가는 원리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해하며 읽었다.

28. 빛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화론자들은 생존에 유리한 돌연변이의 발생이 누적되어 생명체가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다고 본다.
- ② 리처드 도킨스는 새로운 유형의 눈이 나타나는 진화의 과정을 완만한 비탈을 천천히 오르는 것에 비유했다.
- ③ 눈의 진화의 시작 단계에 있는 생물은 빛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는 피부를 통해 빛의 유무만 파악할 수 있다.
- ④ 앵무조개의 눈은 갯지렁이의 눈과 달리 바라보고 있는 대상의 모습이 망막에 하나의 상으로 맺힌다.
- ⑤ 포유류의 눈은 어류의 눈과 달리 빛의 유입량을 늘리기 위해 수정체의 두께를 변화시켜 빛의 굴절률을 조절한다.

29. 광자 경제학을 중심으로 빛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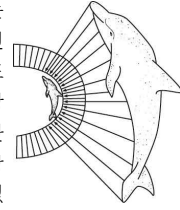
- ① 파동처럼 움직이면서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빛의 속성은 바늘구멍 눈의 빛 유입구를 더 넓히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 ② 빛이 투명한 물질을 통과할 때 굴절되는 성질은 바늘구멍 눈의 빛 유입구를 더 넓히기도, 좁히기도 곤란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게 한다.
- ③ 바늘구멍 눈으로, 아주 밝지 않은 곳에서 대상을 볼 수 있는 것과 대상을 단 하나의 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을 동시에 충족시키기는 어렵다.
- ④ 수정체는 바늘구멍 눈의 빛 유입구를 넓혔을 때 얻게 되는 이점과 바늘구멍 눈의 빛 유입구를 좁혔을 때 얻게 되는 이점을 동시에 취할 수 있게 해 준다.
- ⑤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많은 빛이 유입될 때 일시에 많은 상이 맺히는 현상은 아주 밝지 않아도 대상을 볼 수 있도록 바늘구멍 눈의 빛 유입구를 조절하는 데 제약이 된다.

30. 빛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곤충이나 갑각류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연립상 겹눈은 오목한 눈의 원리를 변형하여 적용하고, 바늘구멍 눈의 원리도 적용하여 상하가 뒤바뀌지 않은 정립상을 만든다. 이 눈은 <그림>처럼 오목한 그릇 모양의 뒷면, 즉 볼록한 표면에 광세포가 바깥쪽을 향하도록 배치되어 있고, 길쭉한 관들이 방사형으로 뻗뻗하게 모여 있다. 각각의 관은 아주 좁은 빛 유입구를 가진 날눈으로, 일직선상에 있는 관측 대상의 작은 일부분에 해당하는 빛만 망막에 맺힌다. 각 날눈에는 투명한 볼록 렌즈가 달려 있고 광세포로 이루어진 망막도 있으나 각 망막에 맺힌 상은 무시되고 날눈을 통해 들어온 빛의 양만 기록된다. 이렇게 빛의 분리 공급을 통해 각 날눈에 들어온 빛이 모두 합쳐지면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온전한 전체 상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그림>



- ① 연립상 겹눈이 빛의 유무를 넘어 관측 대상의 형태까지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연립상 겹눈의 광세포는 투명하지 않겠군.
- ② 연립상 겹눈은 그릇 모양의 볼록한 표면에 광세포가 배치되어 있어서 오목한 눈에 비해 더 많은 양의 빛이 망막에 닿게 되겠군.
- ③ 연립상 겹눈으로 분리 공급된 빛을 통해 최종적으로 인식되는 관측 대상의 전체 상은 실제 관측 대상의 모습과 상하 방향이 일치하겠군.
- ④ 연립상 겹눈의 각 날눈은 관측 대상의 작은 일부분만 감지한다는 점에서 관측 대상의 전체 형상을 감지할 수 있는 바늘구멍 눈과는 차이가 있겠군.
- ⑤ 연립상 겹눈을 구성하는 각 날눈의 망막에 맺힌 관측 대상의 각 상은 수정체 눈의 망막에 맺힌 관측 대상의 상과 마찬가지로 모두 상하가 전복되어 있겠군.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나는 바다로 가는 길로 걸어간다. 노오란 호박꽃이 많이 핀 돌담을 끼고 황혼이 있다.

돌담을 돌아가면 —바다가 소리쳐 부른다. 바다 소리에 내가 젖는다. 내가 젖는다.

물방울이 **생활**처럼 **차**다. 몸에 스며든다. 요새는 모든 것이 ㉠ **젊은 커피처럼 너무도 쓰다**.

나는 **고향**에 가고 싶다. 고향의 숲이, 언덕이, 들이, 시내가 그림다. 어릴 적 기억이 ㉡ **과도처럼 달려든다**.

바다가 **어머니**라면 — 하고 나는 생각해 본다. 바다의 **품**에 안기고 싶다. 안기어 ㉢ **날개같이 보드러운 물결을 쓰고** 맘 편히 쉬고 싶다.

수평선 아득히 아물거리는 은색의 향수. 나는 **찢어진 추억의 천막을** 킁는다, 여기 **모래벌에** 주저앉아 —.

— 장만영, 「향수」 —

(나)

꽃 사이 타오르는 햇살을 향하여
㉤ **고요히 돌아가는 해바라기처럼**
높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 속에 맑은 넋을 살게 하라.

가시밭길을 넘어 그윽히 **웃**는 한 송이 꽃은
눈물의 이슬을 받아 핀다 하노니
깊고 거룩한 세상을 우리르기에
삼가 육신의 괴로움도 달게 받으라.

괴로움에 짐짓 **웃**을 양이면
슬픔도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
고난을 **사랑**하는 이에게만이
마음 나라의 **원광**은 떠오르노라.

푸른 하늘로 푸른 하늘로
㉥ **황시 날아오르는 노고지리같이**
맑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 속에 높은 넋을 살게 하라.

— 조지훈, 「마음의 태양」 —

3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명령형 어조를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시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 ③ 일부 시행을 명사형으로 종결하여 여운을 남기고 있다.
- ④ 색채어의 대비를 통해 대상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 ⑤ 수미상관 기법을 활용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3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일상의 삶에서 받는 느낌을 미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화자가 삶에서 느끼는 고단함을 나타내고 있다.
- ② ㉡: 기억이 견잡을 수 없이 떠오르는 상황을 역동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
- ③ ㉢: 물결에서 연상되는 느낌을 촉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화자의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 ④ ㉣: 햇살을 향하는 대상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하늘에 대한 화자의 동경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하늘로 나아가는 대상의 모습을 상승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시에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화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부정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싶은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가)의 화자는 바닷가에서 과거의 긍정적 기억을 떠올리면서 삶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한다. 한편 (나)의 화자는 자연물의 모습을 제시하고, 그들처럼 삶의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숭고한 태도로 살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 ① (가)에서 ‘생활’이 ‘차’다고 느끼는 것과 (나)에서 ‘괴로움’과 ‘슬픔’을 언급하는 것은 화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부정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가)에서 바다를 보며 ‘고향’의 모습과 ‘어머니’의 ‘품’을 떠올리는 것은 현재 화자가 있는 공간을 통해 과거의 긍정적 기억이 환기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가)에서 ‘모래벌’에 앉아서 ‘찢어진 추억의 천막을 킁’는 것은 화자가 추억을 되새기면서 현재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나)에서 ‘웃’으며 ‘가시밭길을 넘’는 후에야 ‘눈물의 이슬’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숭고한 태도로 살아가는 화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나)에서 ‘고난’을 ‘사랑’해야 ‘원광’이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은 고통을 수용해야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화자의 인식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아내와 동행할 수는 없다고 나는 생각을 굳혔다. 그녀의 지적처럼 실사 어떤 비난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다. 숙부의 갑작스런 죽음에 무엇을 뜻하는가를 비로소 깨달았던 것이다.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 그 죽음은 일찍이 내가 속해 있었던 한 세계의 완전한 종언(終焉)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제 내가 장사 치를 것은 한 사내의 시신이 아니라 그것과 연루된 나의 어둡고 치욕스러운 과거였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한사코 담을 쌓고 은폐해 왔던 그 세계를 마지막 순간에 내 아내에게 열어 보일 수는 없다고 나는 생각했다.

“필 쟁긴다구 그래? 내 양말이나 몇 켤레 내주구려. 돈 좀 하구…….”
불쑥 나는 말했다.

예상했던 일이다. 가방을 챙기던 아내의 동작이 딱 멎었다. 아무 말 없이 그녀는 한동안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이란 사람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노라는 그런 눈빛이었다. 처가는 월남 가족이었다. 고향도 친지도 다 버리고 온 실향민이란 의식이 언제나 강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심과 집착도 별난 데가 있었다. 하지만 ㉠ 나는 그렇지 못했다. 고향이나 친지, 심지어는 나의 가계(家系)에 이르기까지 거의 한 번도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 세계는 이룰때면 내 아내에게 있어서는 철저하게 단혀 있는 세계였는데, 그 앞에서 ㉡ 그녀는 종종 그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곤 했던 것이다.

숙부는 그 세계에 속해 있는 마지막 한 사람인 셈이었다. 아내로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상면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다. 그녀가 간직하고 있는 결혼 사진첩에도 그의 얼굴은 없다. 어머니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결혼을 알리지 않았었다. 이번에는 그쪽에서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와서 새삼스레, 그것도 사자(死者)의 얼굴을 내 아내에게 보여 줄 수는 없다고 나는 거듭 생각을 다졌다.

“나 혼자 다녀오는 것이 좋겠소. 당신까지 무리할 건 없어. 내가 그쪽에 발길을 들여놓는 일도 어차피 이번으로 마지막이 될 테니깐…….”

[중략 부분의 줄거리] 고향과 연을 끊은 채 살아가던 ‘나’는 삼촌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고향으로 향하면서 과거를 떠올린다. 어린 시절 ‘나’의 가족은, 사상운동을 하다 전쟁 직전 종적을 감춘 아버지로 인해 마을 사람들로 부터 수모를 당한다. 가슴에 부상을 입고 전쟁에서 돌아온 삼촌은 파편 제거 수술에 실패하여 상처를 안은 채 살아간다.

살아생전에 내가 고인을 마지막 본 것은 7~8년 전의 일이 된다. 내 어머니의 장례 때 참석지 못했던 그는 어느 날 불쑥, 그것도 내 직장으로 찾아왔던 것이다. 첫 모습에서 나는 그가 이제 막 출감(出監)하는 길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내가 들은 바로는 그때가 네 번째의 출감에 해당했다. 철 지난 옷을 후줄근하게 걸친 그는 꼭 그 차림에 어울리는 표정을 하고 내게 말했다.
“형수님께서 운명하셨단 소식은 저 안에서 들었네. 지금이라도 무덤이나마 찾아왔으마 하는데, 자네 그럴 만한 짬을 낼 수 있겠는가?”

두말없이 나는 앞장섰다. 서둘러 퇴근 시간 전에 돌아올 수 있겠다고 어렵했지만 물론 그렇게는 되지 않았다. 근교

라고는 해도 우리가 묘소에 닿은 것은 해가 설핏한 때였다.
[B] 내 어머니의 봉분에는 잔디가 제법 깊고 넓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는 지식 앞에만 2흙들이 소주 한 병과 쥐치포 몇 쪽을 호주머니에서 꺼내 놓았다. 그러고는 허리를 꺾고 무릎을 꿇은 채 오래도록 일어나지 않았다. 혼신의 힘을 다해 오열을 참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러나 끝내는 땅바닥에 얼굴을 박은 채 그는 신음 같은 울음소리를 냈다.

“자네 아버지 제살랑 5월 중 적당한 날을 택해 모시도록 하소. 가급적이면 중순 이전이 좋겠네.”

돌아오는 차 중에서 그는 불쑥 말했다. 나는 멍하니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때까지도 나는 아버지의 제사를 모시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 어머니의 줄기찬 희망 때문이었다. 6·25 한 해 전에 영영 행방을 감추어 버린 아버지가 세상 어딘가에 아직도 살아 계시리란 희망을 내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 해마다 주인 없는 생일상만을 차려 왔던 일을 생각하고 나는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는 어둠이 깊게 깔리기 시작한 창밖 거리만을 내다볼 뿐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버스에서 내리는 길로 그는 곧장 서울역으로 가 버렸다. 내 집으로 모시마고 나는 물론 말했지만 그는 단지 이렇게 대꾸했을 따름이었다.

“도리가 아닌 줄은 알지마는 어찌겠노. 나야 워낙 그런 사람 아닌가? 빈 껍데기만 남아서 텅마대로 굴러떨긴다 뿐이지.

진짜 모습은 진작에 끝난 거네. 인제사 생각하마, 기왕 한 구렁이 못히지 못한 것만 원통할 따름이제…… 자네 집사람한테는 날 만났단 얘기도 하지 마소.”

나는 더 이상 그를 잡지 않았고, 그러다고 돌아설 사람도 아니었다. 그날 밤 내내 잠을 설치면서 나는 그가 남긴 말을 곰곰 되씹었다. 적어도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다. 그는, ㉣ 삼촌은 내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했던 것이다. ……어쩌면 그의 가슴에 남아 있는 상흔과도 관계가 있는 건지 모른다고까지 나는 생각했다. 비로소 나는 그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제대를 하고 돌아온 삼촌의 모습, 눅눅한 골방에 드러누워 누에처럼 보내던 생활, 재수술을 거부하며 그가 내뱉었던 말들, 굶은 날이면 육신의 어딘가가 아프다면서 오밤중에도 골짜기 꿈꾸었던 일, 그리고 또 갈수록 말수가 줄어든 대신 뿌리가 점점 더 깊이 느껴지던 기침 소리 등등…… 그랬다. 옛날과는 생판 모습이 달라져 버린 그 삼촌에게서 나는 문득문득 어딘가로 종적을 감추어 버린 ㉤ 내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곤 했던 것이다.

- 이동하, 「파편」 -

34. [A]와 [B]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B]는 이야기를 전해 듣는 방식으로 인물이 처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② [A]는 과거를 회상하는 진술을 통해, [B]는 상황을 가정하는 진술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
- ③ [A]는 요약적 서술을 통해, [B]는 의식의 흐름에 따른 서술을 통해 서술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A]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변화하는 추이를, [B]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인물 간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A]는 내면의 서술을 통해 서술자가 특정 판단을 내린 이유를, [B]는 행동의 묘사를 통해 관찰 대상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3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나'가 처가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② ㉡: 아내가 '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음을 나타낸다.
- ③ ㉢: '나'의 어머니가 남편이 살아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알려 준다.
- ④ ㉣: 삼촌이 '나'에게 아버지의 제사 시기를 알려 줄 수 있었던 이유를 짐작하게 한다.
- ⑤ ㉤: '나'가 변해 버린 삼촌의 모습을 통해 종적을 감춘 아버지를 떠올렸음을 보여 준다.

36. 한 세계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가 삼촌과 함께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세계이다.
- ② '나'가 아내에게 털어놓지 못하고 은폐해 왔던 과거이다.
- ③ '나'가 아버지의 행적으로 인해 겪었던 치욕스러운 시간이다.
- ④ '나'가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과거이다.
- ⑤ '나'가 삼촌의 장례에 아내와 동행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되는 시간이다.

3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파편」은 전쟁의 상처와 아픔을 다양한 인물을 통해 다각도로 제시하고 있다. 작품에는 전쟁의 폭력성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고 무기력하게 사는 인물, 정신적 상처를 입고 자기 안에 간혀 부정적 기억을 외면하려는 인물, 고향과 가족을 잃고 살아가는 인물이 등장한다. 이를 통해 전쟁은 종전 후에도 인물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비극적인 사건임을 보여 주고 있다.

- ① 가슴에 파편이 박힌 채 전쟁에서 돌아온 삼촌의 '가슴에 남아 있는 상흔'은 전쟁의 폭력성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② '실향민'인 처가가 고향과 친지에 대해 '관심과 집착'이 '별난' 것은 전쟁으로 고향과 가족을 잃은 아픔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③ '나'가 아내에게 자신의 가계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이 살아온 것은 '나'가 정신적 상처로 인해 자기 안에 간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④ '나'가 삼촌의 장례를 치르는 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고향에 '발길을 들여놓지 않으려는' 것은 전쟁의 상처가 '나'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⑤ 삼촌이 '진짜 모습은 진작에 끝'났다면 '한 구덩이 묻히지 못한 것만 원통'하다고 말하는 것은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쟁의 기억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38~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방초 우거진 시냇가에 **몇 간 초가** 지어 두고
아침저녁 듣는 소리 새 울음뿐이로다
시경(詩經) 서경(書經) 기대어 누워 사립문을 닫았으니
산과 시내 새로운데 구름 안개만 잠겨 있다
늘어진 푸른 술은 늙을 줄을 모르거든
가늘게 시냇물은 주야를 흘러간다
담쟁이 풀 깊은 곳에 찾을 이 뉘 있으며
비바람 부는 ㉠ **세상에** 명성은 내 몰라라
화창한 바람 건듯 불어 산중에 봄이 드니
온갖 꽃이 가득 피고 나비들이 넘놀 적에
경치가 무궁하여 눈앞에 벌어지니
허다히 듣는 소리 반가이 보는 빛을
이른들 다 이르며 뒤라서 그러 내리
㉡ **길고 긴 골짜기에 굴레** 벗은 몸이 되어
꽃 핀 아침 달 뜬 저녁 **마음껏 노닐**다가
붉은 벼랑 구름 속에 이슬 맞고 자란 꽃을
일없이 노닐면서 아침저녁 사랑하다가
붉은 채소를 익게 삶아 아침저녁 요기하니
노순(鰯蓴)* 같은 맛이구나 팔진미를 아랑곳 하겠는가

(중략)

부귀를 다 잊으니 평생에 할 일 없어
청려장을 손에 들고 돌길에서 서성이니
버들에 바람 불고 술 잤나무 달 비칠 때
마음속이 답답하니 해마(害馬)도 간 데 없다
연비어약(鰣飛魚躍)*을 때때로 살펴보니
가을 달 봄바람이 갈수록 흥이로다
단사표음(單食瓢飮)*을 먹으나 못 먹으나
겨울 **갓웃** 여름 **갓웃** 입으나 못 입으나
㉢ **빛 없는 청풍명월과 백년해로 하리라**

— 김기홍, 「채미가」 —

* 노순(鰯蓴): 농어회와 순채나물국.

* 연비어약(鰣飛魚躍): 술개가 날아가고 물고기가 뛰어넘.

* 단사표음(單食瓢飮): 대나무로 만든 밥그릇에 담은 밥과 표주박에 든 물이라는 뜻으로, 소박한 생활을 이르는 말.

(나)

을미년(1595) 봄, 내가 처음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 **두어 이랑의 밭**을 마련했다. 밭은 신벌리에 있었다. 이웃의 농부에게 밭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참 좋은 밭입니다. 어떤 곡식을 심어도 잘 자랄 땅이지요. 습하지도 않고 메마르지도 않아 수해나 가뭄이 들어도 별 영향이 없을걸요. 전에 이곳에 농사를 지은 사람은 수확이 많았지요. 요즘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많아 버려둔 지 5~6년 됐지만 말입니다.”

나는 비옥했지만 오랫동안 버려졌다는 그 땅이 아까워 개간해 보기로 마음을 먹고 아주 단단한 농기구와 노련한 농사꾼 몇을 구해 황소 두어 마리를 끌고 밭으로 갔다.

3월 17일 무렵이었는데, 발에는 잡초와 가시덤불이 우거져 한 치의 빈틈도 없었다. **뿌리가 서로 뒤엉켜** 아무리 날카로운 농기구라고 해도 쉽게 끊어낼 수 없을 정도였다. 괜히 힘만 쓰고 발은 개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후회와 걱정이 슬며시 들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라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었다. 쟁기 하나에, 황소 두 마리를 부려 한 사람은 쟁기질을 하고, 두 사람이 양쪽에서 고삐를 끌면서 발을 개간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딘 도구로 단단한 돌을 깎는 것처럼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발을 일구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보습이 닿는 곳마다, 물살이 거셀 때 물속의 돌이 서로 부대끼며 내는 소리처럼, 우르릉 뿡뿡 하는 소리가 났다.

잡초의 **뿌리를 끊고** 난 뒤 일꾼 발을 보니 굳은 흙덩이가 겹겹이 쌓여 있어 마치 전쟁에서 패배한 군세고 사나운 군사들이 분을 참지 못하고 머리를 풀어 헤친 채 화를 내는 것 같았다. 그러나 발을 점점 더 개간해 가자, **엳뻤던 것이 풀어지고 단단한 흙도** 부서져 예전의 밭 모양을 갖추게 되었고, 힘도 조금씩 덜 들게 되었다. 일하던 사람들도 피곤을 덜 느끼고 개간한 밭을 보며 기뻐했다. 이렇게 계속 개간을 하면 수레 가득 조를 수 확해 담을 수도 있고, 망태기에 곡식을 채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을 하자 마음이 점점 기쁨으로 차오르기 시작했다.

이 일을 하다가 문득 깨달은 것이 있다. 사람의 **마음속에도 좋은 밭**이 하나씩 있다. 그 밭이 바로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다. 그리고 거기에 심는 ㉠ **씨앗**이 인(仁), 의(義), 예(禮), 지(智)이다. 그 밭은 평평하여 험하지 않고 비옥해서 작물이 잘 자란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도 그 땅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 **살면서 사심이 생겨 이랑이 올라오고, 욕심이 생겨 좋은 곡식을 해치면, 밭이 황폐해지고, 나고 자라는 자연의 이치도 멈춘다.**

하지만 그 본질은 사라지는 게 아니다. 진실로 밭을 일구려는 사람이 ㉢ **안희의 사물(四勿)*을 황소로 삼고, 증자의 삼성(三省)*을 쟁기로 삼아 개간하기 어려운 땅을 일구기 시작하여, 한번 이겨 내 뒤에는 느긋한 여유가 생긴다.** 그 결과 예전과 같은 밭을 일구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좋은 곡식이 왜 자라지 않을까 걱정만 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내 밭이 황폐해져 개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스스로를 포기한 것일 뿐이다. ㉣ **밭을 황폐하게 하는 것도 자신이요, 개간해 내는 것도 자신이다.** 나는 여태껏 개간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개간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를 본 적이 없다.

- 정운, 「기황전설」 -

* 사물(四勿): '예의에 맞지 않는 것이면 보지 말며, 듣지 말며, 말하지 말며, 행동하지 말라.'라는 안희의 말.

* 삼성(三省): '나는 날마다 세 가지를 반성한다. 남에게 최선을 다했는가, 친구와 신의 있게 지냈는가, 배운 것을 익혔는가.'라는 증자의 말.

38.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대상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공간에서 느껴지는 현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39.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대상이고, ㉡은 글쓴이가 그 속성을 예찬하는 대상이다.
- ② ㉠은 화자의 시련을 부각하는 대상이고, ㉡은 글쓴이가 소망하는 바가 달라지게 만든 대상이다.
- ③ ㉠은 화자가 이해하고자 하는 대상이고, ㉡은 글쓴이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다고 여기는 대상이다.
- ④ ㉠은 화자가 마음으로부터 경계하는 대상이고, ㉡은 글쓴이가 물질적 여유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대상이다.
- ⑤ ㉠은 화자가 거리를 두려는 대상이고, ㉡은 글쓴이가 각각의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에서 키워 나가기를 바라는 대상이다.

40.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자연 속에 지내며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 ② ㉣: 돈이 없어도 누릴 수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평생토록 누리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 ③ ㉢: 마음이 황폐해지면 사심과 욕심으로 인해 결국 마음의 밭이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 ④ ㉣: 안희와 증자의 말을 교훈 삼아 마음의 밭을 일굴 때 처음의 어려움을 이겨 내면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긴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 ⑤ ㉣: 자신의 내면이 어떻게 가꾸어질지는 스스로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문학 작품에는 삶에 대한 태도가 담겨 있다. (가)의 화자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가난함 속에서도 세속적 욕망에 초탈하여 유유자적하는 삶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나)의 글쓰이는 발을 일구게 된 과정과 힘써 노력한 경험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깨우친 삶의 이치를 전달하고 있다.

- ① (가)에서는 아침과 저녁으로 ‘마음껏 노닐’면서 ‘부귀를 다 잇’었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유유자적하며 세속적 욕망에 초탈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군.
- ② (가)에서는 ‘온갖 꽃이 가득 피어’ ‘나비들이 넘놀’고 있는 경치를 바라보며 다 이를 수 없고 누구도 그려 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군.
- ③ (가)에서는 ‘몇 잔 조개’에서 ‘붉은 채소’를 먹고 지내면서도 겨울의 ‘갯웃’과 여름의 ‘갈웃’을 마련하고자 힘쓰는 모습을 통해 가난한 환경을 이겨 내려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군.
- ④ (나)에서는 ‘뿌리가 서로 뒤엉켜’ 있는 발을 ‘뿌리를 끊’은 뒤 ‘엷했던 것’을 풀고 ‘단단한 흙’도 부수어 개간하는 과정을 통해 발을 일구어나가는 노력을 보여 주고 있군.
- ⑤ (나)에서는 ‘두어 이랑의 밭’을 일구며 깨달은 경험을 통해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마음속의’ ‘좋은 밭’ 또한 황폐해지지 않도록 잘 일구어야 한다는 삶의 이치를 전달하고 있군.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 공자는 부모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다. 모친의 행적을 찾고 부친의 소식을 남방에 가 자세히 듣고자 하여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길을 가려 하였다. 왕 공자가 말리며 말했다.

“형은 다만 공부에 힘써 과거에 급제하면 자연 알 것이니, 어찌 작정한 방향도 없이 세월을 헛되이 보낼 수 있으리오.”

왕 공자가 권유하여 떠나지 못하게 하니, 서 공자가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이때, 서 공자가 구슬을 넣은 비단 주머니가 해어진 것을 보고서 석파에게 그 비단 주머니를 보여 주며 똑같이 하나를 새로 지어 달라고 하니, 석파가 말했다.

“이것을 지어 무엇 하시려 하느냐?”

서 공자가 눈물을 흘리며 구슬에 관한 내력을 말하니, 석파 또한 왕 소저의 구슬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어서 놀라며 말했다.

“그 구슬을 조금 구경하사이다.”

서 공자가 구슬을 내어 보이니, 고운 빛이 눈부시게 밝았고 웅(雌) 글자가 뚜렷하였다. 인하여 구슬을 가지고 안채로 들어가 부인 유 씨에게 이 곡절을 고하였다. 이때 부인 유 씨는 해란 소저가 점점 나이 들어가며 장성하는데 구슬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해 밤낮으로 걱정하였다. 그러던 차에 석파의 말을 듣고 몹시 놀라며 기뻐하여 구슬을 받아 보니, 웅 글자도 뚜렷이 있고 해란 소저의 구슬과도 신통히 같았다. 부인 유 씨가 왕 공자를 불러 그 까닭을 이르니, 왕 공자도 구슬을 보고 손뼉을 치며

크게 웃으며 말했다.

“어찌 이와 같은 신통한 일이 고금에 또 있으리까?”

부인 유 씨가 마음 가득히 아주 기뻐하며 말했다.

“이 구슬의 자웅(雌雄)을 가지고 가서 서 공자에게 그 내력을 일러주고 혼인하기로 정하여 멀지 아니한 가까운 장래에 혼례를 행하도록 하라.”

왕 공자가 자웅의 구슬을 가지고 사랑채에 나아가 서 공자를 향해 말했다.

“형은 만일 자(雌) 글자가 쓰인 구슬이 있으면 그곳에 정혼하려 하느냐?”

서 공자가 어떠한 곡절인지도 모르고 웃으며 말했다.

“형은 지나치게 조롱하지 말라. 소제(小弟)도 미덥지 아니한 일인 줄 알지만, 부모님께서 주신 물건이니 버리지 못할 것이라서 몸에 지니고 있었도다. 마침 구슬을 넣은 비단 주머니가 해졌기 때문에 석파에게 고쳐 달라고 하였더니, 실없는 석파가 널리 퍼뜨려 형에게 조롱을 받음이라.”

왕 공자가 구슬 자웅을 내어 놓고 말했다.

“다름 아니라 나에게 누이동생이 있는데 나이가 열다섯 살이로다. 누이동생이 태어날 때 꿈꾼 이야기가 이상하였지만 자 글자가 쓰인 구슬을 얻었도다. 그래서 지금까지 웅 글자가 쓰인 구슬을 가지고 있는 이를 찾느라 정혼하지 못하였도다. 그랬는데 누가 형에게 이 구슬이 있을 줄 생각했으랴. 누이동생은 비록 배운 것이 없으나 사람됨이 영민하고 지혜로워 군자의 아내는 감당할 것이니, 형은 쾌히 허락하라.”

서 공자도 또한 신기하게 여기며 고마워하여 말했다.

“형의 은혜를 여러 해 입었고 또 아름다운 숙녀를 용렬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배우자로 정해 진(秦)나라와 진(晉)나라의 왕실이 혼인을 맺고 지낸 것처럼 아주 가까운 정의(情誼)를 맺고자 하시니 어찌 사양하리오만, 소제(小弟)는 이 세상의 죄인이나이다. 부모의 생사를 모르는데, 다만 혼인하려는 마음을 생각할 수 있으리오. 구슬은 소제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 신기하오나, **부모님의 소식을 듣기 전에는 혼인하려는 마음을 두지 않으리이다.** 형은 다시 말을 하지 마소서.”

[A]

왕 공자가 말했다.

“형의 말은 사리에 맞지 않도다. 자친(慈親)의 소식을 모르니 실로 사람의 자식으로서 뼈에 사무치게 고통스러운 일이나, 형이 장가를 들지 않으면 조상 대대의 제사는 어찌하려는 것이오. 마땅히 **서둘러 장가**를 든 후라도 부모 소식을 알아봄이 옳은 데다 또 **조상에게 죄인되는 것도** 면할지니 거듭거듭 생각해 보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서 공자와 왕 공자는 과거에 합격하고 천자의 허락으로 서 공자와 왕해란이 혼인한다. 이후 서 공자는 남만으로 출정하는 한편, 제왕이 왕해란을 흠모해 납치하려 한다.

차설. 제왕은 무뢰배를 보내어 왕 씨를 데려다가 후원의 깊은 별당에 들이고서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들어가 소저를 보았다. 지난번 여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유명 승상의 집에 가서 보았던 왕 소저가 아니니, 크게 놀라 물었다.

“그대는 누구이뇨?”

월향이 도적에게 잡혀서 이곳에 도착해 제왕을 보니 분한 마음이 격렬히 일어나는지라 바로 칼을 들어 두 조각을 내고 싶었으나 억지로 참으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B]

“나는 서 원수의 부인의 시비 월향이요. 우리 부인이 비록 여자이시나, 모든 일을 해아리시는 것이 귀신같다오. 환관이 친히 와 사내종들에게 술 먹이는 것을 보고 그날 밤에 변고가 있을 줄 짐작하시고, 나를 대신 있게 한 뒤에 부인은 몸을 피하셨나이다. 제왕은 당당한 만승천자(萬乘天子)의 금지옥엽(金枝玉葉)이요 천승군왕(千乘君王)이거늘, 어찌 차마 이같이 어질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일을 자행하시나이까? 일반 백성의 범상한 여자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려든, 군부(君父)의 명을 꾸며 만들고 불측한 마음을 품어서 감히 조정의 경상가(卿相家) 부인을 밝은 대낮에 도적하고자 했으니 어찌 처벌이 없으리오. 죄는 개인의 사사로운 사정으로 봐주는 것이 없나니, 옛날 진(秦)나라 상양(商鞅)은 태자가 법을 범하자 그 스승까지 형벌하였나니, 제왕은 어찌 몸을 보전하려 하오.”

말을 다 마쳤는데, 아름다운 목소리가 비분강개하여 기운이 추상같았다. 제왕이 한편으로는 왕 소저를 잃은 것을 분하게 여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월향의 꾸밈음에 크게 화를 내었다. 그래서 궁노(宮奴)에게 명하여 월향을 잡아매어 죽이고자 하였지만, 월향이 조금도 겁내지 아니하고 말했다.

“나는 주인을 위하여 죽으려 하나니 빨리 죽이소서.”

—작자 미상, 「쌍주기연」—

42.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 공자는 부친의 소식을 알기 위해 남방으로 가고자 하였다.
- ② 왕 공자는 떠나려는 서 공자를 말리며 공부에 힘을 씀을 권유했다.
- ③ 제왕은 납치해 온 대상이 왕혜란이 아니라는 사실에 분함을 느꼈다.
- ④ 왕혜란은 자신에게 변고가 일어날 것을 짐작하여 미리 몸을 피하였다.
- ⑤ 부인 유 씨가 서 공자에게 과거에 합격하는 대로 혼인할 것을 제안했다.

43.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상대에게 받은 은혜를 고마워하며 상대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있다.
- ② [B]에서는 상대의 신분을 언급하며 상대의 지위에 맞지 않는 비도덕적인 행동을 질책하고 있다.
- ③ [B]에서는 상대에게 행동의 이유를 물으며 상대의 행동으로 인해 자신이 입게 될 피해를 염려하고 있다.
- ④ [A]와 [B]에서는 모두 자신이 처한 문제 상황을 언급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상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 ⑤ [A]와 [B] 모두 고사를 인용하여, [A]에서는 상대를 설득하고 있고, [B]에서는 상대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44. ㉠의 구집과 관련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인 유 씨가 딸의 혼사를 추진하지 않고 기다려 온 계기가 되는 소재이다.
- ② 왕 공자가 서 공자에게 왕혜란에 대한 과거 내력을 알리는 계기가 되는 소재이다.
- ③ 서 공자와 왕혜란이 태어날 때부터 서로의 배필로 정해져 있음을 보여 주는 소재이다.
- ④ 서 공자가 자신의 정혼 상대로 왕혜란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만드는 소재이다.
- ⑤ 왕 공자가 자신의 누이와 서 공자가 서로 인연임을 우연히 알아차리도록 만드는 소재이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쌍주기연」은 중심인물의 애정 서사를 바탕으로 임금이나 주인에 대한 충성, 부모에 대한 효, 여성의 절개라는 당대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조 인물이 사건 전개에 능동적으로 개입하여 중심인물의 애정 서사에 도움을 주거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악인형 인물과 대립하여 작품의 주제 의식을 형상화하는 데 기여하는 모습을 보인다.

- ① 석과가 부인 유 씨에게 ‘곡절을 고하’여 왕혜란의 혼례를 추진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아 보조 인물이 중심인물의 애정 서사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서 공자가 ‘부모님의 소식을 듣기 전에는 혼인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아 중심인물이 부모에 대한 효라는 당대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왕 공자가 ‘서둘러 장가’를 들어 ‘조상에게 죄인되는 것’을 면하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보조 인물이 보편적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사건 전개에 능동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제왕이 ‘무죄배를 보내어 왕 씨를 데려’가려 하는 것으로 보아 악인형 인물이 여성의 절개라는 당대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월향이 ‘조금도 겁내지’ 않고 ‘죽으려 하’는 것으로 보아 보조 인물이 악인형 인물과의 대립 상황에서도 주인에 대한 충성을 다하여 주제 의식을 형상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